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11월 3일(수) 총 3매	 환경특활시 인천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당자	• 시사연구담당 박진영 ☎440-8381 • 담당자 최인영 ☎440-8383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..인천 역사 모두 모았다.

- 인천시, '12가지 주제로 보는 인천역사' 발간 -
- 우리 역사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길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천의 역사 모두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.

인천역사문화총서 제92호로 발간된 이번 책은 인천의 오랜 역사를 12가지 주제로 정리했으며 사진자료, 지도 등을 수록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.

책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주제를 선정해 흥미롭게 서술 했다. 설화 속에 담긴 인천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강화도 부근 리 고인돌과 청동기문화, 한시로 읽는 참성단과 문학산성, 능허대,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인천사람들, 왕과 왕실가족의 유배지였던 강화도와 교동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현대 인천지역을 옛 지도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더했다.

또한 개항 후 인천을 무대로 활동한 문화 예술인과 우리나라 최초의 주안염전, 인천 각지에서 일어난 3·1운동과 만국공원(현 자유공원)의 <13도 대표자대회>, 해안을 매립한 땅에 들어선 각종 공장들, 주안역에서 남인천역(옛 수인선, 인천항) 사이에 부설됐다가 지금은 운행이 중단된 주인선, 도시개발 속에 변화된 민간신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.

인천시는 인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, 인천역사 대중화를 위해 내년 ‘12가지 주제로 보는 인천역사’ 시민강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.

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인천시는 오랜 인천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를 발간할 계획”이라면서 “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해당 서적은 인천 관내 중·고등학교와 도서관, 유관기관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.

< 붙임 > 서적 표지

